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

파주, 올해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 넣는다

김순기 기자 | 승인 2022.01.03 16:46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2월부터 '청년주거지원 사업'을 시행, 청년취업자에게는 월 10만원씩 연 최대 120만원을, 전세대출 시 이자를 연 2%(연 최대 120만원, 2년간)까지 지원한다.

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전을 앞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펼친다. 1월부터 '중소기업 지원시책 사업확대'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준비 단계부터, 진출 후 지속적인 판로 확보 등 단계별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환경도 개선한다. 1월부터는 '네이버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지원과 오프라인 이용객을 위한 쇼핑카트가 문산시장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저출산 문제와 육아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등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1월 이후 태어난 아이는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 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2022년 출생아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영아 1명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만 하고,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시는 1월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산업단지 여성플랫폼'을 조성해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육아 부담도 줄어든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전담· 통합어린이집에만 지원된 운영비를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교사 인건비가 아닌, 아동 수에 따라 지급한다.

시는 교통혁신의 속도를 더 높여 시민들의 편의와 도시경쟁력도 키운다. 지난해 12월21일 도입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버스(DRT) '부르미'와 함께 15일에는 마을버스 3개 노선 11대도 추가로 운영한다.

대한민국 대표 DMZ 안보관광지인 파주는 상반기에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이하 관광센터)'를 운영해 안보관광의 중심거점으로 성장한다.

아울러 DMZ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도 1월부터 운영한다.

최종환 시장은 "민선7기 파주는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엄중히 새겨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번영과 도약을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면서 "더 공정하고, 더 도약하는 파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파주/김순기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